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올해도 대박

24일부터 나흘간 3만6천명 찾아 어린이 축제 주도·콘텐츠 확대 가을 어린이날 선물 콘셉트 주요



지난 24일부터 4일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가 방문객 3만 6000여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공연장을 찾은 가족 관람객들. <곡성군 제공>

곡성에서 열린 심청어린이대축제는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가을 어린이날'이었다. 곡성군은 지난 24일부터 4일간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는 총 3만6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성공적인 축제로 지난 27일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의 방문객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축제 기간 4일 중 2일이 평일인 점을 고려하면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이같이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였다는 점이며, 이 같은 사실이 어린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준 셈이다.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지역과 전국 어린이들 300여 명이 펼친 개막퍼레이드와 개막선언이었다.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유모차와 어린이 퍼레이드는 극강의 귀여움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했다.

또한 캐리커와 엘리, 신비아파트, 베베핀, 로보카폴리 등 심어롱쇼와 뮤지컬, 로봇과 공룡, 인기캐릭터, 마술·풍선·바블쇼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대폭 확장 배치한 것도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축제장인 섬진강 기차마을 어디에서든 체험과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 기획도 눈에 띄는 점이다.

특히 디즈니 동화 콘셉트의 주인공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서 합창으로 화음을 맞추고 아이들이 직접 개막을 선언해 관광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곡성군이 파격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입장 이벤트를 진행한 것도 주요했다.

따뜻한 날씨 덕에 기차마을 내 장미정원에는 가을장미가 피어 짙은 향기를 내뿜고 곡성군이 육묘장에서 직접 가꾼 국화 화분이 축제장 전체를 장식하고 있어 더욱 화려한 공간 연출이 가능했다.

기차마을의 주요 경관 포인트인 에펠탑과 중앙광장 돔, 중앙무대를 리본·선물상자 등으로 꾸며 마치 어린이들이 선물 받는 기분을 느끼도록 조성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군은 축제의 대주제인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전국어린이 합창대회', '2025년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공식 포스터 공모전' 그리고 '전국요리경연대회'도 개최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축제는 어린이들을 위한 '가을 어린이날' 선물 콘셉트가 주효했으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했다는 점이 의미가 큰 축제였다"면서 "내년에도 여름 기차마을 대규모 물놀이장 개장 등 항상 새로운 변화로 관광객들에게 멋진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광양중앙도서관 '한강을 읽다' 독서 모임

다음달 2일부터 대표작 두권 완독

국내 최초의 노벨문학상 주인공인 한강 작가의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에서 '한강을 읽다'라는 독서모임이 운영된다.

광양중앙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작가의 대표작 중 두 권을 읽는 독서 모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도서관은 이번 독서 모임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독서 모임과 차별화했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참가자가 사전에 책을 읽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도서관에 모여 책을 읽은 후 북 멘토와 함께 작품의 역사적 배경·작가의 문학적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독서 모임의 주제 도서는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이며, 이 중 한 권을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 완독한다는 목표이다. 완독한 참여자에게는 선정 도서를 증정할 예정이다.

'소년이 온다'의 독서 모임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이어 '작별하지 않는다' 모임은 내달 30일부터 12월21일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다.

독서 모임별로 광양시민 10명을 모집한다. 모집 신청은 '소년이 온다'의 경우 지난 22일부터 받고 있으며 '작별하지 않는다'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lib.gwangyang.go.kr)을 통해 접수하거나, 광양중앙도서관에 전화(061-797-3864)로 가능하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가 종포해양공원에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 모습.

"소중한 사연, 빛과 영상 통해 전해드립니다"

여수 종포해양공원 미디어 파사드 매주 3일간 2분씩 메시지 서비스

"가족·친구·연인,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곳을 이용하세요."

여수시가 종포해양공원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뜻깊은 소통과 추억의 장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미디어 파사드는 각종 매체를 가리키는 미디어(media)와 건물의 입구가 있는 정면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파사드(facade)의 합성어이며, 건물 외벽에 LED 조명·LED 디스플레이·프로젝션 맵핑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해 빛과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시는 5명의 사연을 선발해 매주 3일간(금·토·일요일) 오후 8시 10분부터 50분까지 2분간 메시지를 표출해주고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메시지 표출 희망일 5일 전까지 여수시 관광문화 누리집(www.yeosu.go.kr/tour)-'추천코스★이벤트'-'미디어파사드'에 접속해 20자 이내의 문구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이순신광장부터 낭만포차에 이르는 종포해양공원 약 1.5km 구간에 미디어파사드와 미디어 월 등을 설치해 스마트 관광 거리로 조성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 제암산서 짜릿한 라이딩 다음달 16일부터 이틀간 전국산악자전거·라이딩 대회

보성 제암산에서 스릴 넘치고 짜릿한 라이딩의 묘기가 펼쳐진다.

'제1회 보성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 및 국민라이딩대회'가 다음달 16일부터 이틀간 제암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다.

한국산악자전거연맹 주관·보성군 후원의 이번 대회는 전국 최고의 단풍 명소인 제암산과 보성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산악자전거 등 산악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임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대회 첫날인 16일에는 '다운힐 경기'와 '국민라이딩 대회'가 치러지며, 다음 날에는 '크로스컨트리 경기'가 진행된다.

대회 코스는 국제경기 개최가 가능한 다운힐 경기장과 크로스 컨트리 코스가 마련됐다. 다운힐 경기장은 1.4km 구간이며, 크로스컨트리는 제암산에서 일립산 임도를 거쳐 인수 저수지 둘레길을 지나 제암산자연휴양림으로 돌아오는 16km 구간이다.

특히 크로스컨트리 코스는 종점부에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어, 산악자전거 선수 및 동호인의 쾌감과 도전 의욕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위



다음달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1회 보성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 및 국민라이딩대회'의 종목인 산악자전거 다운힐 모습. <보성군 제공>

는 엘리트 및 중급자는 2바퀴, 초급자는 1바퀴 안으로 결정된다.

'다운힐 경기'와 '크로스컨트리 경기' 참가 희망자는 한국산악자전거연맹 누리집 및 전화(043-272-9724)로 신청하고, 참가비는 4만원이다.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라이딩 대회'는 제암산자연휴양림 담안저수지 둘레길과 일립산 주변 도로를 활용한 10km 코스로 가족 단위 참석자가 많을 것으로 기

대된다. 국민라이딩 대회는 보성군 누리집 및 전화(061-850-5481)로 신청하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개회식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제암산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제2회 전라남도지사배 숲속캠핑대회'와 함께 열린다.

참가자 전원에게 중식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 고급 자전거 등의 경품을 뽑을 수 있는 추첨권도 증정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 덕연장학생 모집...중·고·대학생 대상

순천시 덕연동의 '덕연장학생'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덕연장학재단은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1년 이상 덕연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액수는 중학생의 경우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이다. 중학생은 학교장 추천으로 지정되며, 덕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덕연장학재단은 지난 2002년 관내 통장들

중심으로 출범한 덕연동민중학회를 모태로 22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재단은 통장·공무원·관내 30여개의 상가 및 점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63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장학금 신청 문의를 덕연동 행정복지센터(061-749-8289)로 하고, 순천시 누리집 공고에서 신청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